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의 학문적 기여와 사회적 영향*

송 경 애
(강서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철금동검루, 해원각, 벽송루, 팔천권루)가 당시 중국 학문과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 시도한 것이다. 이들 장서루는 전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였으며, 학문적 자원을 개방하여 지식의 확산과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였다. 각 장서루의 설립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학문적 전통의 전승과 지식 공유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학문 전통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철금동검루는 금석문과 송·원 시대의 희귀 고판본을 중심으로 금석학 연구의 중심지로 기능하였고 해원각은 산동 지역 학문 전통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벽송루는 문헌 교정과 필사 작업을 통해 학문적 자원의 공공화를 실현하였으며 팔천권루는 유실된 『사고전서』를 복원하여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전통 문헌 전승을 부흥시켰다. 본 연구는 이들 장서루의 활동이 당대 학문적 담론과 지식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밝히며 전통 문헌 보존이 현대 학문 연구와 지식 체계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개인 장서루, 장서문화, 철금동검루, 해원각, 청말 장서루

* 이 논문은 2025년도 강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중국의 장서문화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전통을 보존해 온 학문적 유산으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지식의 집적과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청말은 외세의 침략과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겹친 격동의 시기로 국가 차원의 문헌 보존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문헌의 유실 위험이 극대화되었고 동시에 개인 장서 활동이 학문적 소명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부상한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철금동검루(鐵琴銅劍樓), 해원각(海源閣), 벽송루(詠宋樓), 팔천권루(八千卷樓)로 대표되는 청말 4대 개인 장서루는 지식 보존과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적 학문 전통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장서루는 단순히 서적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학문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문헌의 수집과 보존 및 출판 활동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지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 장서루는 설립자의 독창적 철학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헌 보존의 전통을 학문적 성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서루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장서루의 운영과 소장 도서 목록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각 장서루가 위치한 지역의 학문적, 문화적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합적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¹⁾

1) 청말 개인 장서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장서루의 장서 경위, 소장 문헌의 성격, 판본 가치, 그리고 장서 목록 정리 등에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철금동검루 및 해원각 관련 연구에서는 장서의 형성과 수장과정, 서목(書目)체계, 판본학적 가치 등에 대한 고증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벽송루와 팔천권루 연구 역시 장서 규모와 소장 문헌의 학술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장서루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학문 생태, 지식 유통 구조, 지역 문화 형성과의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청말 4대 장서루가 각기 다른 지역적 맥락에서 학문적, 문화적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장서루가 수행한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이들이 남긴 유산이 현대의 학문적 연구 및 지역 문화 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서루의 활동과 각 지역 학문 전통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장서루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현대적 가치를 지닌 지적 모델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의 설립 철학

1. 해원각-양이증(楊以增)의 학문적 이상

해원각(海源閣)은 청말 산둥성(山東省) 임기(臨沂)에 위치한 개인 장서루로, 양이증(1787-1856)이 설립하였다. 양이증은 청 중후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관료로, 그의 학문적 열정과 장서 수집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해원각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는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해원각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대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매증량(梅曾亮)은 「海源閣記」에서 양이증의 장서 활동을 서술하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고서를 애호하고 문헌의 유실을 안타까워하며 적극적으로 수집에 힘썼음을 기록하였다.²⁾ 양이증은 서적과 도(道)의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장서각 건립의 목적을 단순한 서적 보관이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전승에 둔 것이다. 이는 그가 장서를 단순한 수집 행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유산을 통해 도를 계승하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³⁾ 그는 해원각을 단순한 도서관

2) 이 기록은 梅曾亮의 「海源閣記」에서 “楊以增之子楊紹和亦致力於藏書事業, 『搜羅典籍, 不遺餘力, 孤本珍籍, 精校名抄, 乃悉集於聊城.』”라고 언급한 내용으로 그의 문집 『柏榭山房文集』 卷十一에서 참조하였다.

이 아니라 학문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여겼다. 이러한 철학에 기반하여 해원각의 소장 도서는 경학(經學), 사학(史學), 자학(子學), 집학(集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宋, 元 시기의 희귀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양이증은 이러한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말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아들 양소화는 『해원각장서목(海源閣藏書目)』에서 “무릇 소장한 서적은 모두 경사자집(經史子集) 사부(四部)를 두루 갖추었으며 송나라와 원나라의 고판본은 특히 진귀하다.”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해원각 소장 도서의 풍부함과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학문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아들 양보이(楊保彝)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해원각의 장서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원각총서목(海源閣總書目)』을 편찬하였다. 이 서목은 후대 학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청말 학술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해원각은 지역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산둥 지역의 학문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철금동검루- 구소기(瞿紹基)와 구용(瞿鏞)의 문화적 사명감

철금동검루(鐵琴銅劍樓)는 청말 강소성(江蘇省) 상숙(常熟)에 위치한 개인 장서루로, 장서가인 구소기(瞿紹基)와 그의 아들 구용(瞿鏞)에 의해 설립되었다. 구소기와 구용은 청 중기의 저명한 학자이자 장서가인데 그들의 문화적 사명감과 학문적 열정은 철금동검루의 설립으로 이

3) 姜民(2005)에서 海源閣 장서의 형성과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故書猶海也, 流之必至於海也, 勢也」라는 구절을 제시한다. 이 표현은 서적의 유통과 귀속을 역사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이해한 진술로, 장서 행위를 단순한 소유나 축적의 차원을 넘어 학문 전승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楊紹和 編, 『海源閣藏書目』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장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凡所藏書, 悉備經史子集四部, 而宋元舊本, 尤為珍秘」

어졌다. 구용(2000:1-3)에 따르면 “고서가 날로 희귀해지고 있으니 이를 적시에 수집하지 않는다면 후세에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古書日稀, 若不及時收羅, 後世將無從復見).”라고 언급하며 문헌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란과 시대 변화 속에서 문헌이 손실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그는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철금장서루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그의 아들 구용에게로 이어져서 『鐵琴銅劍樓藏書目錄』(2000:1-3)에서 “내가 서적을 수집한 것은 한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실로 천하 후세를 위한 공적인 도구이다. 비록 철금(鐵琴)과 동검(銅劍)은 작으나 그 뜻은 크다(予之收書, 非一己之私, 實為天下後世之公器也, 鐵琴銅劍雖微, 而所寓之意甚大)”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철금동검루가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장서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용은 이러한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말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후손인 구병연(瞿秉淵)은 조부의 유지를 이어받아 철금동검루의 장서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鐵琴銅劍樓總書目』을 편찬하였다. 후대 학자인 부증상(傅增湘)(1983:85)은 이 서목이 후대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청말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철금동검루는 지역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강소성 지역의 학문적 성장을 촉진하는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벽송루—육심원(陸心源)의 宋本 서적에 대한 열정

벽송루(畝宋樓)는 청말 절강성의 오흥(吳興)에 위치한 개인 장서루로, 육심원(1834-1894)이 설립하였다. 육심원은 청말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서가 유실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였으며 특히 宋元 시대의 각

본(刻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육심원은(2016:1-2) 『皕宋樓藏書志』의 自序에서 “송·원 시대의 각본은 점차 소멸 되어 가고 있으니 지금 수집하지 않으면 후세에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宋元刻本, 日就湮滅, 若不及时收羅, 后将無復可見).”라고 언급하여 벽송루의 최우선 목표가 소실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그는 “내가 장서를 수집함에 있어 송나라 판본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그 새김이 정교하고 종이와 먹이 모두 훌륭하여 실로 문화의 보배이기 때문이다(余之藏書, 獨鍾宋槧, 以其刻工精良, 紙墨俱佳, 實為文化之瑰寶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송나라 판본을 단순히 희귀한 유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학문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벽송루의 소장 도서는 경학(經學), 사학(史學), 자학(子學), 집학(集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송나라 시대의 희귀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육심원은 이러한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말 학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섭덕휘(1999:4-15)에 따르면 “육씨(陸氏)의 벽송루는 송·원 각본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장서의 정밀함과 교정의 세밀함은 당대를 대표할 만하다((陸氏皕宋樓, 以宋元刻本為宗, 藏書之精, 校勘之細, 堪稱一代楷模).”라고 하여 벽송루의 장서 철학과 운영 방식이 청대 학문 연구와 서지학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따라서 벽송루는 단순한 개인 장서 공간을 넘어서 희귀 고서 보존, 학문 연구 지원, 가문의 문화 전승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실현한 학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심원 사후에 벽송루의 소장 도서는 일본으로 유출되어 중국 문화사에서 큰 손실로 여겨지고 있다.

4. 팔천권루- 정병(丁丙)과 정신(丁申) 형제의 지역 문화 보존

팔천권루(八千卷樓)는 청대 절강성(浙江省) 전당(錢塘)의 학자이자

장서가인 정신(丁申)과 정병(丁丙) 형제가 설립한 개인 장서루로, 중국 문헌 보존과 학술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신과 정병 형제는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학문적 유산을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팔천 권루를 설립하였다. 정신과 정병 형제의 지역 문화 보존 의지는 그들이 남긴 문헌에서 잘 드러난다. 정병은 『八千卷樓書目』에서 “나는 아우 신(申)과 함께 이 누각을 세웠으니 이는 사적인 소장 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항저우의 문맥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다(余與弟申, 共築此樓, 非為私藏, 實欲保存杭州之文脈, 以饗後)”⁵⁾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병과 정신 형제가 단순히 개인적 취향으로 장서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팔천권루를 통해 항저우 지역의 학문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형제는 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학문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팔천권루의 소장 도서는 경학(經學), 사학(史學), 자학(子學), 집학(集學) 등 사부 분류 체계에 입각한 방대한 학술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항저우 지역과 관련된 희귀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정병은 『八千卷樓書目』에서 “무릇 소장한 서적은 모두 경사자집(經史子集) 사부(四部)를 두루 갖추었으며 항저우 지역 문헌은 특히 진귀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팔천권루의 소장 도서의 방대함과 체계성을 실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했던 정병과 정신 형제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정병은 “장서는 선현(先賢)의 정수를 전하고 후학(後學)의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다.(藏書者所以傳先哲之精蘊, 後學之聰明)”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팔천권루의 장서가 단순한 보관용이 아니라 후세 학자들에게 학습과 연구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씨 형제는 장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八千卷樓書目』과 『善本書室藏書志』를 편찬

5) 이 내용은 정병(丁丙)의 『八千卷樓書目』 상책(上冊)에 수록된 叙一 「八千卷樓自記」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

하여 각 도서의 판본, 출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들은 장서는 그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학적인 관리 방식은 장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장서가들에게도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

Ⅲ.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의 학문적 기여

1. 전통 문헌의 보전과 학문 연구 기반 조성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인 철금동검루, 해원각, 벽송루, 팔친권루는 설립자의 학문적 이상과 당대 지식환경의 변화 속에서 출현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문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작업을 통해 학문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후속 학문 세대의 연구 자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철금동검루는 강소성 상숙(常熟)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소기(瞿紹基)를 비롯한 瞿氏 가문에 의해 운영되었다. 瞿氏 가문은 家學 전승을 위해 조부 대부터 적극적으로 서적을 수집하였으며 고본 확보를 통해 문헌의 전승과 학문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다. 구봉기(2000:1-3)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장서를 좋아하여 시서(詩書)로 가문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장서루를 세우고 방대한 서적을 수집하여 자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吾家世好藏書, 欲以詩書傳家, 故建此樓, 廣收書籍, 以備子孫之用)”라고 밝히며 고서 수집의 학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철금동검루는 국내외 고문헌 유통 시장, 경매, 서적 교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송대부터 명대까지 이어지는 희귀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전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흩어진 문헌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주력하였다. 아울러 정밀한 교정 및 교감 작업을 통해 수집본의 학문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지역 학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식

의 공유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錢仲聯:1996:52 참조). 양이증(楊以增)에 의해 설립된 해원각은 전통 지식의 보존과 전승을 지역 학문 정체성 유지의 핵심으로 인식하였으며, 가문의 보물로 삼아 송·원대 희귀본, 다양한 필사본, 유실 문헌 복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집망을 구축하고 서적상 및 교유 학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고서를 입수하였다. 수집된 장서는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서 목록으로 구축되었으며, 학문적 활용을 위해 일정 부분 열람이 허용되었다(丁延峰:2012:78-80 참조). 절강성 귀안 지역에서 육심원(陸心源)에 의해 설립된 벽송루는 송·원대 희귀본 보존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육심원은 희귀 고본의 체계적 복원을 통해 중국 학문 전통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서적상, 장서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육심원은 『皕宋樓藏書志』에서 희귀한 송 판본의 판식과 장서인, 피휘자 등 관련 기록을 상세히 기술하여 교감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였다.⁶⁾ 또한 吳澐(1981:120)에 따르면 육심원은 문헌 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학자들에게 자유로운 장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다. 정병(丁丙)의 팔천권루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유실된 문헌 복원과 四庫全書 보충을 목표로 장서 수집에 전념하였다. 팔천권루는 전국 고문헌 유통망을 활용하여 희귀본과 필사본, 교감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정밀 교정과 교감을 거쳐 목록화하였다. 정병은 세상의 학문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문헌의 보존과 전승을 일관되게 실천하였다. 이처럼 청말 4대 개인 장서루는 각각의 설립 철학과 수집 전략을 바탕으로 방대한 전통 문헌의 체계적 보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후속 학문 세대의 연구 기반 형성과 중국 문헌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이와 관련하여 林淑玲의 『陸心源及其皕宋樓藏書志史部宋刊本研究』의 <제4장 벽송루장서지의 서지적 특징 분석>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국내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의 분석」도 함께 참조하였다.

2. 지식 네트워크 형성과 학문의 활성화

청말 4대 개인 장서루는 단순한 장서 보존 공간을 넘어서 당대 학문 교류의 중심지이자 지식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들 장서가는 장서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학자들과 협력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장서의 유통과 교정, 출판을 통해 지식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청말 학문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현대적 학문 체계의 발전에도 일정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1) 지식 네트워크 구축의 문헌적 기반

청말 장서가는 장서 목록 편찬을 통해 소장 서적의 체계적 분류와 전송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학문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팔천권루의 경우, 정병(丁丙)이 편찬한 『善本書室藏書志』는 선본서실에 소장된 송 원본, 사고전서 저본, 명대 교감본 등 희귀본에 대한 상세한 解題를 통해 장서의 학문적 계보를 복원하였다. 또한 印章 기록을 통해 정씨 가문과 타 장서가 간의 서적 교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아들 정입중(丁立中)이 편찬한 『八千卷樓書目』은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경사자집 4부 체계로 분류하고 팔천권루, 후팔천권루, 소팔천권루 등 장서 체계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⁷⁾ 벽송루의 육심원(陸心源)은 『皕宋樓藏書志』를 통해 희귀 송 판본의 장서 출처, 판식, 서발, 장서인 등 상세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귀본 여부를 고증하고 교감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남송 시기 『사기』, 『자치통감강목』의 다수 고본을 확보하여 벽송루의 문헌학적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철금동검루의 瞿氏 가문 역시

7) 丁立中, 『팔천권루서목』(청말 간본, 현행본은 『속사사고전서』 수록본 참조). 이 목록은 팔천권루, 후팔천권루, 소팔천권루의 장서를 경사자집 체계로 통합 정리한 것으로 정씨 가문 장서의 학술적 활용도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鐵琴銅劍樓藏書目錄』을 통해 송·원본 희귀본과 교감 기록을 수록하였고 장서 목록, 판본, 교감 기록을 통합한 독창적 체제를 구축하여 후대 善本 書目 편찬의 典範이 되었다.⁸⁾

2) 협력 연구와 교감학 네트워크의 활성화

각 장서루는 교정, 교감 작업을 중심으로 협력적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팔천권루에서는 『四庫全書』가 전란으로 소실되자 정병, 정신 형제가 전국의 서점, 서적상과 협력하여 유실본 수집과 필사본 복원 작업을 주도하였다. 원대 추원의 『금연집』은 청대에 항저우 서점에서 입수한 후 교감을 거쳐 『사고전서』 복원에 기여하였다(石湘:1994 참조). 또한 교감학자 고균유(高均儒)는 장기 체류하며 정보이(丁保彝) 등과 함께 『荀子』 등 고문헌의 교정 작업을 진행하였고(藍文欽:1984:45046 참조), 허한(許瀚)은 명초본 『集韻』을 대여받아 교감한 사례를 『攀古小廬文集』에 남겼다. 벽송루 역시 고균유, 하소기(何紹基), 섭지선(葉志詵) 등 학자들과 협력하여 교감 및 장서 교환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각(碑刻) 자료와 희귀본이 다수 확보되었다.⁹⁾ 瞿氏 가문은 ‘通假制度’라는 독자적인 장서 운용방침을 세워 철금동검루의 소장본을 바탕으로 한 학자들의 교정 및 대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황비열, 고광기 등 명망 있는 금석학자들이 瞿氏 장서에 접근하여 교감

8) 『철금동검루장서목록』의 체제적 특징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를 청대 4대 장서목록 가운데 ‘판본 정보와 교감 기록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의 성숙한 사례로 평가해 왔다. 이는 정병(丁丙)의 『선본서실장서지』, 육심원(陸心源)의 『벽송루장서지』와 더불어 서로 병행적으로 발전한 세 가지 장서목록 유형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왕중민의 「중국 선본 서목 체제의 발전」 및 부선중(傅璇琮)의 『중국장서통사』 관련 장을 참조

9) 허한(許瀚), 『반고소려문집(攀古小廬文集)-攀古小廬日記』 참조. 이 문집에는 육심원이 고균유, 하소기, 섭지선 등과 교환한 서찰 및 금석, 비각 자료 관련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벽송루의 교감 활동과 장서 교류 네트워크, 그리고 비각 자료와 희귀본 수집의 구체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士禮居叢書』 등에 수록되어 금석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3) 장서 개방과 지식의 공공화 전환

청말 장서루는 지식의 공공화를 지향하며 개인 소장자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팔천권루는 정씨 가문이 재정난으로 장서 매각 위기에 처했을 때 양강총독 단방(端方)이 강남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장서를 국가적 공공 자원으로 전환하였다.¹⁰⁾ 이는 청말 장서 공공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철금동검루의瞿氏 가문도瞿啓甲 등 후손들이 소장본을 점차 국가 기관에 기증하였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경도서관(현 중국국가도서관)에 3차례에 걸쳐 수백 종의 희귀본을 기증하여 개인 장서가의 공공화 모델을 선도하였다.¹¹⁾ 이러한 흐름은 해원각과 팔천권루의 기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瞿啓甲은 『鐵琴銅劍樓書影』을 출판하여 소장하고 있던 희귀본을 복제, 보급함으로써 희귀본의 소실을 막고 고문헌의 전승과 학문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고정룡(1963:1-2)은 “고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대 전환”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장서가들은 단순 소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헌의 발굴과 출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팔천권루의 정병은 『武林掌故叢編』, 『武林往哲遺著』 등 지방 문헌 총서를 간행하여 항저우 지역의 서원과 관청, 여러 문인들과 협력하여 출판 자금 확보 및 편집 체계를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출판 네트워크는 지역 문헌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0) 청말 공공 도서관 제도의 성립 과정에서 4대 장서의 국가 편입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팔천권루 장서는 정씨 가문의 재정난으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端方의 주도로 江南圖書館에 이관됨으로써 귀중한 문헌의 산실과 유출을 방지하고 공공 학술 자원으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철금동검루 장서의 국가 기증은 1950년대를 전후해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鄭振鐸의 선본 선별과 제도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차수별 기증 시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蔡成普(2005) 참조.

IV. 문화적 기여와 사회적 영향

청말 4대 개인 장서루는 단순한 고서 수집소를 넘어서 당대 중국 학문과 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희귀 문헌의 체계적 보존뿐만 아니라 학문적 교류의 촉진과 지역 문화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 장서루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 그리고 후대 학자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문헌 보존과 전승에서의 문화적 기여

철금동검루는 송·원대 희귀본과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 방대한 장서를 구축하였다. 瞿氏 가문은 문헌의 학문적 가치를 중시하며 체계적인 보존과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후대 학자들은 철금동검루의 장서 보존 방식을 단순한 소장 넘어서 교정, 교감을 통한 학술 정리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曹培根:2004:55-56내용 참조).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금석문 자료의 교감학 발전에 핵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해원각은 전란 속 유실 위기에 놓인 산동 지역의 고판본과 필사본을 수집, 보존함으로써 지역 문헌 전승의 공백을 메웠다. 양이중의 장서 활동은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후대 연구자들은 이를 청말 산동 지역 문화 전승의 결정적 기여로 평가하였다. 벽송루의 육심원은 송·원대 고본을 중심으로 교정과 교감을 통해 문헌의 정확성을 높였고 이를 후속 학문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후대 학자들은 벽송루의 체계적 장서 정리 방식을 학문 교정의 典範으로 평가하며 이 체계가 중국 전통 문헌학 연구에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본다(吳晗:1981:124 내용 참조). 팔천권루는 태평천국의 난 이후 유실된 문헌 복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고전서』 보충을 통해 학문적 공백을 보완하였다. 정병은 문헌 복원을 전통문화 부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후대 학자들은 이를 청말 장서문화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4대 장

서루는 각각의 방식으로 고문헌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며 중국 문헌학 및 장서문화 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2. 지역 학문 발전과 사회적 영향

청말 4대 장서루는 각 지역에서 학문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역 학문 전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였다. 첩금동검루는 금석문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학문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瞿氏 가문은 장서를 개방하여 후학들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는 금석학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후대 연구자들은 첩금동검루를 금석학 연구의 중요한 학술 거점으로 평가하였다.¹²⁾ 해원각은 산둥 지역 학문 네트워크의 중추로 기능하며 학자들 간의 교류 기반을 확립하였다. 양이증은 장서를 학문 교류의 필수 기반으로 간주하였으며 후대 연구자들은 해원각을 산둥 지역 학술 전통의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하였다.¹³⁾ 벽송루는 희귀본 공개를 통해 송·원대 판본 연구를 활성화하고 희귀 자료의 공공화를 선도하였다. 육심원은 장서를 후학의 공공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였고 후대 학자들은 이를 중국 장서문화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하였다.¹⁴⁾ 팔천권루는 유실 문헌의 복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학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 학문의 재건과 발전에 기여

12) 마형(馬衡) 『中國金石學概論』에서는 금석학 연구가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방법론적 처치를 전제로 심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王重民的 『中國善本目錄』의 발전』에서도 『鐵琴銅劍樓藏書目錄』은 교감기를 부기하는 체례로 높이가 평가되며(附校勘記, 體例極善), 이는 청대 장서 목록의 학술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이후 금석학 및 판본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13) 해원각 장서의 학술적 성격에 대해 정연봉(丁延峰)은 『해원각장서연구』에서 양이증이 장서를 학문 교류의 필수 기반으로 인식하였으며 해원각이 산둥 지역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결집시키는 학술 거점으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14) 오함(吳晗)은 『강절장서가사략(江浙藏書家史略)』에서 육심원이 희귀본을 후학에게 개방함으로써 송·원대 판본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 장서를 공공 학술 자원으로 전환한 선구적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였다. 정병은 자신의 장서 활동이 당대뿐 아니라 후대 학문 기반 형성을 지향함을 강조하였으며 후속 연구자들은 이를 근대 장서 부흥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보았다.¹⁵⁾ 이들 장서루는 각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지역 지식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다.

3.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연속성 강화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의 활동은 단순한 고문헌 보존을 넘어 전통 지식과 근대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적 자기인식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장서가는 문헌을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후세를 향해 계승되어야 할 공적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장서 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즉, 장서 행위는 전통 문화의 ‘보존’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단절 속에서 문화적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의식적 실천이었다.

청말의 정치적 혼란과 전란은 지역 학문 전통과 지식 전승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장서가는 국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며 전통 지식 체계의 보존 주체로 자임하였다. 문헌의 수집, 정리, 교정, 공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문화적 책임 의식의 표현이었다. 이 점에서 청말 장서 활동은 문화적 위기 속에서 나타난 자발적 지식 보존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장서가들은 문헌 보존을 현재의 학문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학문을 위한 준비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장서를 후학에게 개방하고 교감과 목록화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높인 행위는 지식의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 지

15) 팔천권루의 장서 활동과 학술적 의의에 대해 전중련(錢仲聯)은 『장서와 문화 부흥』에서 정병이 유실 문헌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서를 지역 학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학문의 재건과 장기적 학문 기반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식이 단절되지 않고 근대 학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장치로 기능하였다.

후대 연구자들이 이들 장서루를 단순한 개인 소장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역사적 거점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서루는 지역적,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전통 문화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재해석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말 4대 장서루는 전통 지식 체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동시에 근대 중국 학문 인프라 형성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의 의의는 특정 지역이나 학문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의 장서 활동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개인과 공공, 보존과 활용이라는 긴장을 조화시켜 문화적 연속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사례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말 장서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중국 학문과 공공 지식 체계 형성의 역사적 토대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청말 4대 개인 장서루(철금동검루, 해원각, 벽송루, 팔천권루)는 단순히 문헌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 중국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학문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장서루는 전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희귀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했으며 학문적 자원을 외부에 개방하여 지식의 확산과 학문적 교류를 촉진했다. 설립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학문적 전통의 전승과 지식 공유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며, 그 결과 지역 학문과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철금동검루는 금석문과 송·원 시대의 희귀 고판본을 중심으로 금석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문헌 보존과 학문적 담론 형성을 지원했다. 해원

각은 산동 지역의 희귀 문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학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벽송루는 희귀 고판본과 필사본의 교정과 공개를 통해 학문적 자원의 공공화를 실현하였으며, 팔천권루는 유실된 『사고전서』를 복원하여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전통 학문을 부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4대 장서루는 단순히 문헌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차원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다. 이들 장서루의 문헌 개방과 활용은 지식의 사유화를 넘어서 정보의 공공성을 확립하였으며, 이는 현대 공공 도서관 시스템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장서루의 활동은 전통 문헌 보존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학문과 지식 체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말 4대 장서루의 유산은 현대 학문 연구와 문화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들 장서루의 활동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학문적 모델로서 지식 공유와 문화 보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연구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들 장서루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현대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은 중국 장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학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梅曾亮, 『柏枧山房文集』, 『續修四庫全書』.
- 楊紹和, 『海源閣藏書目』一卷, 光緒戊子(1888) 元和江氏師鄭室刊本.
- 瞿鏞(2000), 『鐵琴銅劍樓藏書目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6.
- 傅增湘(1983), 『藏園群書經眼錄』, 北京: 中華書局, 85.
- 陸心源(2016), 『皕宋樓藏書志』,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2.
- 張秀民(1989), 『中國印刷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60.
- 葉德輝(1999), 『書林清話』, 湖南: 岳麓書舍, 4-15.
- 馬衡(2019), 『中國金石學概論』,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88.
- 王重民(1992), 『冷廬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970.
- 許瀚(2022), 『攀古小廬文集』, 齊魯書社, 상권 <攀古小廬日記>.
- 曹培根(2008), 『瞿氏鐵琴銅劍樓研究』, 蘇州: 蘇州大學出版社, 55-56.
- 楊以增(2022), 『海源閣書目』,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瞿風起(2000), 『鐵琴銅劍樓藏書目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3.
- 錢仲聯(1996), 『鐵琴銅劍樓研究文獻集』,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2.
- 蔡成普(2005), 『鄭振鐸與鐵琴銅劍樓藏書捐獻』, 『圖書館雜誌』 제4기.
- 丁延峰(2012), 『海源閣藏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78-85.
- 吳晗(1981), 『江浙藏書家史略』, 北京: 中華書局, 117-118.
- 林淑玲(2005), 陸心源及其 <皕宋樓藏書志> 史部宋刊本研究, 花木蘭文化工作坊.
- 姜民(2005), 『楊氏海源閣及其藏書略述』, 『大學圖書館』, 9권 1기, 123-125.
- 옥영정(2012),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서지학연구 52, 249-293.
- 藍文欽(1984), 『鐵琴銅劍樓藏書研究』, 台灣: 台灣大學碩士論文, 45-46.
- 呂澄(2006), 『中國學術史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王明珂(2017), 「清代藏書與學術交流：以鐵琴銅劍銅劍樓为例」, 中国社會科學雜誌, 24(3), 112-130.
- 石湘(1994), 「杭州丁氏八千卷樓書事新考」, 『浙江圖書館學刊』第3期
- 李俊(2014), 「海源閣與山東學術傳承」, 『山東大學學報』 30-2, 85-98.
- 張立新(2019), 「百宋樓的學術價值與歷史影響」, 『中国圖書館學報』 42-1, 23-36.
- 劉華(2015), 「中国私人藏書與學術網絡的形成」, 『文化研究』 13-4, 150-164.
- 趙凱(2018), 「清末私人藏書與公共學術资源的融合」, 『學術論壇』 10-2, 45-58.

❖ ABSTRACT

Scholarly Contributions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Four Major Private Libraries in the Late Qing Dynasty

Song, Kyung-Ae
Gangseo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four major private libraries from the late Qing Dynasty—Tiejin Tongjian Lou, Haiyuan Ge, Bisong Lou, and Baqianjuan Lou—on the advancement of Chinese scholarship and culture. These libraries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preserved rare books during a time of war and social upheaval, and their founders dedicated themselves to promoting knowledge dissemination and academic exchange. Driven by a mission beyond personal interests, they aimed to uphold academic traditions and share knowledge, significantly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regional scholarly practices.

Tiejin Tongjian Lou served as a center for epigraphical studies and the preservation of rare books from the Song and Yuan periods. Haiyuan Ge was instrumental in maintaining and enhancing the academic traditions of Shandong. Bisong Lou made scholarly resources accessible through manuscript corrections and transcriptions, while Baqianjuan Lou addressed academic gaps by restoring lost texts, including volumes from the Siku Quanshu. This study underscores the contributions of these libraries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discourse and knowledge networks of their time, offering insights into how traditional book preservation can foster modern academic research and knowledge systems.

Keywords: Private Libraries, Book Collection Culture, Tiejin Tongjian Lou, Haiyuan Ge, Bisong Lou, Baqianjuan Lou, The Four Major Private Libraries in the Late Qing Dynasty

■ 논문투고일 : 2026. 01. 09

■ 심사완료일 : 2026. 01. 31

■ 게재확정일 : 2026. 02. 09

